

# 심리전기적 정보(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상현\*, 손정락\*\*  
마더심리학습센터\*,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on Attitude Change toward Mentally Ill People

Sang-Hyun Kang\*, ChongNak Son\*\*  
Ma-Deo Psychological Learning Center\*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있어 심리전기적 정보가 가지는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30명을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과 정신병리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처치 정보를 제공 받기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 사례에 대한 설명을 5분가량 들었고, 태도변화에 대한 측정치는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연구결과 집단 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내에서는 정신병리적 정보 집단의 경우 호감도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심리전기적 제공 집단에서는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심리전기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심리전기, 태도변화, 정신질환자, 정신병리, 사회적 거리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on the attitude change toward mentally ill people. For this, 30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group that received a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PBI) and the other group a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PPI). Measures of attitude change were favorability, reliability, and social distance. The resul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only in social distance between the two groups. Within each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favorability only in the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grou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avorability, reliability and social distance in the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group.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have empirically confirmed that a psychobiographical approach can be effective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entally ill people.

**Key Words** : Psychobiography, Attitude Change, Mentally Ill People, Psychopathology, Social Distance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ChongNak Son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rson@j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행동과 같은 특성 자체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곤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회피적인데[1], 부정적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은 그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부정적 평가나 낙인으로 인해 무력감, 수치심, 자존감 저하를 겪어 결국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2,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재화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비정상적이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 여기게 만들어 사회적 일원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4].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여 통합되기 위해서는 치료장면 밖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혹은 태도는 반복적인 접촉만으로도 장애인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인다거나 사회적 거리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5, 6]. 특히,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해 온 Corrigan 등[7]은 장애인의 낙인을 감소시키는 방안 중 항의, 교육, 접촉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접촉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촉을 통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관련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닌 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교육 혹은 공익적 목적의 캠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한 지식의 전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 또한 그와 관련한 지식 부족이라 할 수 있고[8], 실제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태도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된바 있다[9, 10, 11].

정신장애 인을 포함해 한 인간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접근을 떠나 그 사람

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가 전제될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태도는 인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2, 13].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질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대부분 교육 혹은 접근 가능한 정보들은 해당 장애와 관련한 역학, 원인, 증상, 치료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한 접근은 주로 정보 전달 혹은 지식 전달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태도 변화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지적 접근 이외에 감정적인 측면까지 고려될 수 있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심리전기(psychobiography) 분야에서 저명한 Runyan[14]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있고, 서로 모순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한편의 시(詩)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같이 특수한 사람에 대해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전달과 같은 인지적 수준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른 사람을 설득력 있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심리전기(psychobiography)이며[15], 심리전기적 정보를 통해 한 사람의 삶 전반에 대해 다각적 접근을 할 수 있어 인지, 정서, 심리사회적 이해와 그에 따른 태도변화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심리전기는 간략하게 전기(biography)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심리학(psychology) 이론을 활용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최근에는 좀 더 확장된 정의로써 심리학 및 역사 편찬적(historiographic)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전 생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이미 잘 수립된 심리학 이론들에 따라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6]. 이러한 심리전기적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의 생성과정에 미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질환이 발생하기까지의 고통까지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태도변화가 가능할 듯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 있어 심리전기적 정보(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이하 PBI)가 가지는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태도변화 연

구들에서 확인된 교육의 효용성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관련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과 그 장애인과 관련해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나 서적을 통해 흔히 접하게 되고 일부 교육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정신병리 정보(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이하 PPI)를 제공한 집단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 2. 방법

### 2.1 참가자

본 실험의 참가자는 지방소재 J대학교 학생 30명이었다. 이중 15명씩 각 집단에 무선 배정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무기명으로 하였다.

### 2.2 실험절차

실험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는 우선 알코올 중독자와 관련한 사전자극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정한 부정적 인상을 형성했다. 그 이후 사전평가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각 집단 참가자는 사전평가가 끝난 이후 집단별로 심리전기적 정보와 정신병리 정보를 각각 제공 받았다. 그 이후 태도변화에 대한 사후평가에 앞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과정을 통해 변화된 측면에 대한 정보(사후자극)를 참가자들 모두에게 제공했다. 사후자극을 제공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정신질환자들은 증상이 일정부분 호전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포함해 일반적인 접촉 및 상호작용 상황을 전제하기 위함이었다. 사후자극까지 제공되고 난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사전자극, 실험처치, 사후자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전자극: 특정인물(알코올 중독자)의 문제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사태에 대한 정보를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두 집단 모두에 약 4분가량 제공했다.

실험처치: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약 5분가량 정독하는 것이다. PBI 집단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전기적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심리전기적 정보 내용에는 그 사람의 출생 이전의 가정내 배경(조부모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부모의 결혼 과정과 결혼 이후 상호작용

방식, 부모와의 관계 특성과 형제들과의 관계 등 성장 초기 양육환경, 학령기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 성인 초기부터 결혼이전까지의 생활 및 결혼생활, 최근의 생활 중 겪곤 하는 문제 특성들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정신질환자 사례 관련 심리전기적 정보의 경우 연구자가 실제 만났던 사례와 정신병리 관련 교재에 기술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PPI 집단 참가자들은 알코올 중독 관련 정신병리적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원인, 역학, 증상양상 등에 대한 정보로서 일반인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했다.

심리전기적 정보와 정신병리적 정보는 모두 A4용지 3/4 분량으로 준비했고, 약 5분가량만 실험 참가자들에게 노출됐다.

사후자극: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회복된 점, 퇴원 이후 가족과의 관계개선과 구직활동과 같은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에 몰두하고 있음을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약 4분가량 두 집단 참가자 모두에게 설명해 주었다.

실험진행 중 집단 간에는 물론 동일한 집단 내 참가자 간에도 대화를 비롯해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단 간에 서로 제공 받은 정보가 달라 정보를 나눌 경우 오염될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태도나 표현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 3. 변인

독립변인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전기적 정보인지 일반적인 정신병리적 정보인지 하는 정보의 종류였다.

종속변인은 태도변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호감도**는 양극형용사 체크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불쾌한-유쾌한], [차가운-따뜻한], [싫은-좋은]을 9점 척도 점수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신뢰도**는 제시된 정신질환자 사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7점 척도 점수로

확인했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측정은 제공된 사례 주인공을 카페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공간에서 접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고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0)’에서부터 ‘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6)’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 점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 받은 참가자들의 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통한 측정 외에 심리전기적 정보나 정신병리적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나 느낌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보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있었던 참가자의 심리상태를 비롯해 참가자의 이전 경험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술도 요청했다.

#### 4. 결과

##### 4.1 집단간 동질성 검증

집단간 태도변화 비교에 앞서 심리전기적 정보 제공 집단과 정신병리적 정보 제공 집단간 사전 동질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하였다. 독립 t 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해본 결과,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BI 집단과 PPI 집단 간에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비교적 동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Homogeneity Test of PBI group and PPI group

	PBI(n=15)	PPI(n=15)	t
	M(SD)	M(SD)	
Favorability	13.06(3.01)	14.73(3.49)	-1.399
Reliability	2.33(1.11)	2.67(0.97)	-.872
Social Distance	3.93(1.38)	3.53(1.24)	.831

Note. PBI: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PPI: psychopathological Information

##### 4.2 정보의 차이가 가져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

심리전기적 정보 제공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것과 태도변화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본 비교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호감도와 신뢰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28)=3.049, p<.01$ ).

<Table 2> Attitude Change Difference between PBI group and PPI group

	PBI(n=15)	PPI(n=15)	t
	M(SD)	M(SD)	
Favorability	16.73(2.93)	15.60(2.77)	1.086
Reliability	3.20(1.01)	2.87(0.91)	.945
Social Distanc	5.07(.96)	3.67(1.49)	3.049**

\*\* $p<.01$

##### 4.3 심리전기적 정보가 정신질환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심리전기적 정보의 효과가 일반적인 정신병리 정보만을 제공 받았을 때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변화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Attitude Chang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within each group

	Group	Pre(n=15)	Post(n=15)	t
		M(SD)	M(SD)	
Favorability	PBI	13.06(3.01)	16.73(2.93)	-4.132**
	PPI	14.73(3.49)	15.60(2.77)	-2.578*
Reliability	PBI	2.33(1.11)	3.20(1.01)	-2.303*
	PPI	2.67(0.97)	2.87(0.91)	-1.146
Social Distance	PBI	3.93(1.38)	5.07(.96)	-4.795**
	PPI	3.53(1.24)	3.67(1.49)	-.564

\* $p<.05$ , \*\* $p<.01$

<Table 3>의 분석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정신병리 정보만을 제공 받아도(PPI 집단) 호감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14)=-2.578, p<.05$ ). 그렇지만 신뢰도와 사회적 거리감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정신병리 정보 제공만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PBI 집단)에서는 호감도( $t(14)=-4.132, p<.01$ ), 신뢰도( $t(14)=-2.303, p<.05$ ), 사회적 거리감( $t(14)=-4.795, p<.01$ )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 교육의 효용성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관련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과 정신병리적 정보를 제공한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방식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태도변화보다는 심리전기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서의 태도 변화 차이를 확인한 결과 호감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감 측면에서만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상황에 살아감에 있어 대중들과 만나고 접촉하며 상호작용을 하며 지내기 위해서는, 특히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집단 내 구성원들로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진솔하고 구체적인 삶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집단 내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리적 정보만으로도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모두 변화가 있기는 하나, 호감도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원인, 역학, 증상 양상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감소하여 호감도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보제공을 통한 인지적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더 믿게 된다거나 사회적 장면에서 가까이하고자 하는 내적 태도까지 변화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식교육만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을 일부 감소시키기는 해도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선행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17].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 내에서는 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비해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들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다 신뢰하게 되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정보가 실험 참가자들의 태도변화에 미쳤

을 질적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적인 정신병리적 정보만을 제공 받았다고 해도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그에 따른 부정적 인상의 감소는 있었고, 이것이 호감도 증가로 나타난 듯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다!’는 의견과 함께 ‘처음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보고가 많았다. 심리전기적 정보를 제공 받은 집단에서는 정신병리적 정보 집단과는 달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와 같은 정서적 공감과 이해를 전제로 한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신질환자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문제 행동에 대해 불쾌한 느낌이 감소되고 그러한 행동이 이해되어 도와주고 싶다는 이타심(利他心)을 보고함으로써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적 동기의 증가까지 눈에 띄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변화가 단순히 인지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요소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던 Hajjat[12]의 견해와 일치하는 듯 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볼 때, 정신질환자가 일정한 치료 후에 사회로 복귀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신병리 관련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개인이 살아 온 삶 전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아마도 Schultz[15]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삶 전반에 대해 다양한 발견을 하고 그러고자 노력할 때 효과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내적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미디어나 사회적 장면들에서 접하게 되는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킴에 있어 심리전기적 접근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연구 결과는 적어도 정신질환자의 가정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직장, 학교, 자조모임을 포함한 사회적 공동체 등 그 사람이 속해 살아가는 장면들 속 구성원들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살아온 삶과 그 삶 속에서의 고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나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경우 보다 효과상호작용 및 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전기적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가

기도 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연구에서 제공된 사전자극과 사후자극이 부정 및 긍정적으로 편향된 측면이 강했다는 점이다. 물론 임상 현장에서는 사례로 제시된 정신질환자와 같은 인물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으나, 일반 대중이 접하는 경우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지나친 부정 및 긍정 편향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또한 실험참가자가 대학생이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지는 일반화의 문제도 있어 보였다. 심리전기적 정보가 가지는 효용성이 확인된 만큼 추후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고 임상 장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모색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J. N. Kim & M. K. Seo. "A Study o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Il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9, pp. 589-607, 2004.
- [2] P. W. Corrigan, J. E. Larson & N. Rüsch. "Self-stigma and the 'why try' effect: Impact on life goals and evidence-based practices", *World Psychiatry*, Vol. 8, pp. 78-81, 2009.
- [3] D. A. Perlick, A. H. Nelson, K. Mattias, J. Selzer, C. Kalvan, C. H. Wilber & P. W. Corrigan. "In our own voice-family companion: Reducing self-stigma of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Vol. 62, pp. 1456-1462, 2011.
- [4] A. J. Frances. "Saving normal: Mental health and what is normal", *Psychology Today*, 2013.
- [5] S. Ando, S. Yamaguchi, Y. Aoki & G. Thornicroft, "Review of Mental Health Related Stigma in Japan", *Psychiatry Clinical Neuroscience*, Vol. 67(7), pp. 47-82, 2013.
- [6] P. W. Corrigan, J. Larson, M. Sells, N. Niessen & A. C. Warson. "Will filmed presentations of education and contact diminish mental illness stigm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3, No. 2, pp. 171-181, 2007.
- [7] P. W. Corrigan, L. W. River, R. K. Penn, K. Uphoff-Wasowski, J. Campion, J. Mathism, C. Qagnon, M. Bergman, H. Qoldstein & M. A. Kubiak. "Three strategies for changing attributions about severe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Vol. 27, No. 2, pp. 187-195, 2001.
- [8] G. Wolff, S. Pathere, T. Craig & J. Leff. "Community knowledge of mental illness and reaction to mentally ill peop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68, pp. 191-198, 1996.
- [9] H. Baxter, S. P. Singh, P. Standen & C. Duggan. "The attitudes of tomorrow's doctors towards mental illness and psychiatry: Changes during the final undergraduate year", *Medical Education*, Vol. 35, No. 4, 2001.
- [10] K. Emrich, T. C. Thompson & G. Moore. "Positive attitude: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car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es & Mental Health Services*, Vol. 41, No. 5, pp. 18-24, 2003.
- [11] C. MacLaughlin. "The effect of classroom theory and contact with patients on the attitudes of student nurses towards mentally ill people", *Journal of Advances Nurses*, Vol. 26, pp. 1221-1228, 1997.
- [12] M. M. Hajjat. "The conceptual organization of behavior and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7, pp. 777-784, 1990.
- [13] M. C. Millar & A. Tesser. "Effect of affective and cognitive focu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270-276, 1986.
- [14] W. M. Runyan. "Life Histories and Psychobiography: Explorations in theory and Metho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15] W. T. Schultz. "Handbook of Psychob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16] J. G. Ponterotto, J. D. Reynolds, S. Morel & L. Cheung. "Psychobiography training in psychology in north america: Mapping the field and charting a course",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Vol. 11,

No. 3, pp. 459-475, 2015.

- [17] M. O. Kang. "The effects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skill training using role play on prejudice and intention of interaction with the mentally-disabled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Vol. 12, No. 2, pp. 23-39, 2009.

강 상 현(Kang, Sang Hyun)



-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마더심리학습 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심리상담, 심리전기
- E-Mail : malgnaldo@hanmail.net

손 정 락(Son, Chong Nak)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 E-Mail : jrson@jbnu.ac.kr